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ding Education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School Violence and Empathic Ability

김 정 남 (Jeong Nam Kim)**

조 미 아 (Miah Cho)***

초 록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태도와 인식, 공감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태도의 하위 영역인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태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능력의 하위 영역인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상상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need of developing reading education programs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at reading education program has on teenagers' attitude, awareness and empathy of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Reading education program influenced on the attitude of the school violence. They had a meaningful effect about the sub-factor of the school violence permissive, attitude for the victim and attacker. Second, Reading education program had an influence on empathy ability. They had a meaningful effect about the sub-factor of the empathy ability take view point, empathic concern, individual anguish and imaging.

키워드: 독서교육 프로그램, 폭력예방, 학교폭력태도, 공감능력, 중학생

Reading Education Program,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e Attitude of the School
Violence, Empathy Ability, Middle School Students'

* 본 연구는 2016년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 청주 서원중학교 사서(nami8817@naver.com) (제1저자)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miah100@naver.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7년 2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17년 3월 7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3월 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1): 79-95, 201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1.07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학력 위주의 입시제도, 학교폭력, 교실 붕괴 현상, 서열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현실 속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최근 학교 폭력은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비행청소년에서 일반 청소년들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6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전년도에 비해 0.1% 감소하였지만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0.9%인 3만9천명이었다. 피해유형별 응답건수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심각한 우울, 불안, 보복성 폭력 등의 후유증으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자살에 이르는 등의 정신적, 심리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교육부 2016). 유네스코가 2016년 18개 나라 10만 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발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3%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특히 11세~13세 학생 중 34%는 최근 1개월 내 괴롭힘을 겪었고, 8%는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연합뉴스 2017). 최근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심의건수의 69%에 달하며,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도 중학생의 증가율이 초등학생의 7배, 고등학생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법제처 2017).

학교폭력에 대한 OECD국의 대응 방안은 학교 안전 문제의 다면성 및 예방적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학부모, 청소년 단체, 경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장기적 종합적 전략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학교폭력의 성공적 대응방안의 공통점은 사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과 취약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는 특징이 있다(Shaw 2004).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특색에 맞는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격적 행동의 직접적 동기 중 하나가 분노이므로, 분노를 공감으로 대처하거나 공감을 증진시키는 훈련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에만 몰입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타인의 슬픔과 분노 등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김이경, 최명선 2012).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예방의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태도와 공감 능력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포함한

혼합연구로 진행하였다.

첫째,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기술하였다.

둘째,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독서프로그램을 9차시에 걸쳐 실시한 후 사전·사후의 변화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6).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그리고 사회적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표 1>과 같다(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3).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 금품 갈취,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구분된다. 학교폭력 유형별 정의는 <표 2>와 같다(조정실, 차명호 2012).

2. 이론적 배경

2.1 학교폭력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

2.2 공감 능력

공감은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인지적 요소와 타인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가 동시에 관련된 내적 과정이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박지수 2010). 공감은 자연발생적 정서를 나타내

<표 1> 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국 가	정 의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행하는 부정적인 행동. • 학교폭력 행동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학대, 놀리는 표정 짓기, 무례한 체스처, 소문내기, 피해자를 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등 다양한 형태를 모두 아우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을 ‘bullying(bullying)’이라고 명명 •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는 공격적 행동으로 실제적 또는 지각된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나타남 • 한 번 이상 반복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음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힘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이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개인에게 가하는 억압(탄압) • 학교폭력은 보다 힘이 있는 자가 해치거나 고통을 주거나 겁을 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학생에게 행하는 신체적·언어적·사회 심리적·사회적 공격의 한 형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을 이지메(집단 따돌림)와 같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문제 행동으로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함 • 어떤 집단 내 권력자가 그 집단의 한 구성원을 지목하여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행동

〈표 2〉 학교폭력의 유형별 정의

유형	정의
신체적 폭력	• 신체의 상해를 일으키거나 불편감을 야기하는 행위
금품 갈취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협박과 강제적 힘을 바탕으로 하여 금품을 빼앗거나 상납을 요구하는 행위
정서적 폭력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고의로 따돌림으로써 소외시키거나 정신적인 괴롭힘을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적 폭력	• 빈정대거나 거친 말투로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사이버 폭력	•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를 협박하거나 상대의 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하여 상대방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행위 •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는 정서적 공감과 타인의 정서를 통한 인지적 공감으로 구성된다. 정서적 공감에는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 음성을 모방하여 타인의 정서와 비슷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지적 공감은 자신과 타인의 믿음, 바람, 의도와 같은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것이다(박민 2012).

공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Singer 2006).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이나 도덕성, 양심의 발달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억제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박효정, 정미경, 박종호 2007).

공감능력은 상대방에 대한 지각을 정확하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대인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한다. 공감은 견고한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 이타적 동기를 유발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박혜원 2002).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으면,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도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게 된다(EBS 2012).

2.3 선행연구

지금까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과 공감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는 독서치료 분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오계선(2008)은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에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 적의성 등 공격성 전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박영미(2013)는 그림책을 활용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사회기술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영(2011)은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존중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자기개념이 형성되었으며,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조현주(2016)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된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중학생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학생 집단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신체

적, 정서적인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과 왕따 등의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대인관계를 위한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독서교육이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와 공감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3. 학교폭력 예방 독서프로그램 운영

3.1 학교폭력 예방 독서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조사, 분석 및 설계, 개발, 적용의 4단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사'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재한 중학교 1-3학년 총 40명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를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와 높은 순위의 요구사항 내용을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둘째,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는 선행 연구를 조사하고 학생들에게 독서교육 프로그램 요구조사를 수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독서교육 프로그램 주제는 친구관계, 따돌림, 이성교제, 자신감부족, 학교적응, 폭력, 인터넷 중독, 분노/화, 우울/무기력 등이다. 참여 학생들과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폭력, 학업스트레스, 친구관계, 따돌림, 인터넷 중독, 자신감부족, 분노/화, 두통/통증에 대한 독서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차시수와 시간을 결정하고 각 차시에 다른 차시별 목표를 설정하여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개발'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로 각 차시별 목표, 활동 주제, 활동 내용 및 활동지를 제작하고, 이론전문가와 현장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 연구자에 의해 잠정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이론적 타당성은 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 학교폭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문을 받고, 현장 적용 및 일반화 가능성은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 독서지도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넷째, '적용' 단계에서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S중학교 1~3학년 학생 40명 중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적 구성은 중학교 1~3학년까지 연령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연령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실험집단은 학교폭력예방 중심의 독서교육을 적용하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3.2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교육복지사, 독서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상담사와 전문 상담 교사, 학교폭력 예방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도서관 사서 등 총 4명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각 차시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개념인식, 공감 능력 증진, 태도 변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의 차시별 운영 내용은 <표 3>과 같다.

첫째, ‘개념 인식’ 단계(2차시~4차시)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종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폭력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학교폭력에 직면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떨쳐내는 시간을 갖고,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돌림, 자존감,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도서인 『보이지 않는 아이』, 『트루먼스쿨 악플 사건』, 『우아한 거짓말』을 읽고, 활동지를 작성한 후에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기가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학교폭력대상자인지 자신의 유형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감 능력 증진’ 단계(5차시~6차시)에서는 학교폭력의 대상자인 가해자, 피해자, 방

<표 3> 차시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내용

단계	차시	프로그램명	활동 목표 및 내용	활동 자료
프로그램 안내	1	프로그램의 이해 및 마음 열기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검사를 통해 학교폭력 태도와 공감 능력 정도를 알아본다.	• 서약서 • 검사지(사전검사) - 학교폭력 태도 - 공감 능력
개념 인식	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개념을 바르게 인식한다.	『보이지 않는 아이』 - 활동지
	3	이런 행동도 학교폭력 인가요?	학교폭력의 종류와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트루먼스쿨 악플 사건』 - 활동지
	4	사바나 초원에서 살아남기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본다.	『우아한 거짓말』 - 활동지
공감 능력 증진	5	그대로의 네가 아름다워	학교폭력의 대상자 유형을 알고, 사례를 친구들과 나눈다.	『삼봉이밭소』 - 활동지
	6	내 마음을 알아줘	친구들과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다.	『도와줘, 제발』 - 활동지
태도 변화	7	너의 마니또가 되어줄게	소외된 친구들을 방관자의 시선이 아닌 방어자로서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양파의 왕따 일기』 - 활동지
	8	사랑엔 조건이 없습니다		『내 짝꿍 최영대』 - 활동지
프로그램 종결	9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독서교육 프로그램 종결을 알린다. 사후검사와 소감을 나누며 활동했던 것을 정리한다.	• 검사지(사후검사) - 학교폭력 태도 - 공감 능력

관자, 방어자 유형에 맞춰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써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반응을 알게 됨으로써 관계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수용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어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고 원만한 의사소

통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대상자 유형인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어자의 각 사례가 담겨 있는 『삼봉이발소』, 『도와줘, 제발』을 읽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상황에서 자신이 그동안 어떤 학교폭력대상자 유형이었는지 생각해보고 활동지를 작성한 후 내용을 발표하고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표 4〉 독서교육 수업지도안 사례(3차시)

주 제	사이버 윤리의식과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아보기		차 시	3차시	
대상도서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도리 힐레스타드 버틀러/미래엠앤비)				
학습자료	책, 활동지, 동영상 자료, PPT		학습모형	문답해결학습	
지도 단계	학습내용	교 수 · 학 습 활 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수활동	학습활동		
도입	◎ 마음 열기	◎ 영상을 보여주고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유추하여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소재를 이야기 한다.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발표한다. •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게 조리 있게 말한다.	10	• 영상("신종 학교폭력 카따") •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 펼치기 • 학습활동	◎ 내용의 줄거리를 '이어 말하기로' 이야기해 본다. • 읽고 나서 제일 기억나는 장면을 말해 본다. ◎ 내용 이해하기 •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문제를 찾도록 한다.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분석하도록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도록 한다. ◎ 공감하기 • 각 등장인물의 의견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한다. ◎ 깊이 생각하기 • 사이버 폭력에 대한 친구들의 해석과 평가를 정리하도록 한다.	▶내용을 생각하며 이야기해 본다. ▶자신이 작성한 활동지를 발표하고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한다. • 문제점을 찾는다. • 여러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분석한다. • 주장과 근거를 정리한다. ▶친구들의 발표를 정리해보면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를 해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친구들의 발표 내용이 적절한 근거로 뒷받침 되어 있는지 판단해 본다.	40	• 활동지 • 일상생활 속에서 사이버 폭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 한다. • 현대 사회의 기술 발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 마무리 • 학습 내용 정리	◎ 본시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을 읽으면서 느낀 점과 서로 나누어 이야기 를 모아 정리하도록 한다.	▶자료를 보며 본시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10	• PPT 자료 • 활동지
	◎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 PPT로 차시학습에 학습할 주제를 제시한다. • 과제를 제시한다. - 다음 차시 도서 읽어오기	• PPT로 차시 학습할 주제를 경청하고, 인지한다.		

셋째, ‘태도 변화’ 단계(7차시~8차시)에서는 역지사지를 생각하며 소외된 친구들을 방관자의 시선이 아닌 적극적인 방어자로서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에 대하는 태도를 개선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타주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대상자 유형 중 피해자들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되는 심리 변화 과정과 피해자를 방관하는 방관자들의 학교폭력의 실상이 담겨 있는 『양파의 왕따 일기』, 『내 짝꿍 최영대』를 읽고 학생들이 가해자,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소외된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활동지를 작성한 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태도가 변화하는 단계로 유도하였다.

3.3 독서자료 선정

독서교육에 사용된 도서는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편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영향력이 있으며, 주제에 부합되는 것인가(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2001)에 초점을 두고 도서를 선정하였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료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발행한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와 전국독서새물결모임의 『진로독서 가이드북』, 학교도서관저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복한아침독서,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의 추천도서 목록 중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도서를 선정하였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 도서는 <표 5>와 같다.

<표 5> 학교폭력예방 독서교육 프로그램 선정 도서

차시	도 서	내 용
2차시	『보이지 않는 아이』	친구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지내는 주인공 브라이언이 전학 온 친구 저스틴을 사귀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가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렸다.
3차시	『트루먼스쿨 악플 사건』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교묘하게 악플 문화를 조장하는 가해자와 ‘악플 놀이’에 참여하게 된 방관자인 주변 인물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섬세하게 묘사하였다.
4차시	『우아한 거짓말』	열네 살 소녀 천지의 죽음을 통해 따돌림, 자살 등의 문제를 통해 청소년의 내면을 세밀히 묘사하였다.
5차시	『삼봉이발소』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박장미와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인물들을 치유해주는 이발사 삼봉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진 장점과 개성적인 매력을 찾아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6차시	『도와줘, 제발』	주인공 니코가 아무 까닭 없이 왕따의 희생자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학대와 괴롭힘에 시달리며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심리 변화 과정과 학교 폭력의 실상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다.
7차시	『양파의 왕따 일기』	학교폭력과 학교폭력의 피해자를 방관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이다. 울고 그물에 대해, 또 틀린 것을 보았을 때에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8차시	『내 짝꿍 최영대』	시골에서 전학 온 최영대는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놀림을 받아도 표현을 하지 않는 영대와 반 아이들은 극적으로 화해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게 된다.

3.4 독서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반응 분석

사서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한 모습을 <표 6>에 기술하였다. 독서교육을 하기 전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직접적인 괴롭힘이 아니면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폭력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의식을 갖지 않으며, 다툼이 일어나면 상황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분위기를 조장하는 방관자의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많았다.

‘개념인식’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무심

결에 했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해결 방법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가해자를 배려해주는 것에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공감능력증진’ 단계에서는 독서교육이 진행되면서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던 학생들이 비난, 비판, 강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방관자와 방어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표 6> 사서가 관찰한 학생들의 반응

단계	사서가 관찰한 학생들의 반응
독서교육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괴롭힘이 아니면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폭력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 피해자로서 폭력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복을 당할까봐 행동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다툼이 일어나면 상황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분위기를 조장하는 방관자의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많았다. •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선불리 끼어들지 않거나,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 못 본 척하고 묵인해버린 경우가 많았으며, 자기 표현력이 약하고 소외받는 친구들을 은연중에 피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개념인식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네티켓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학교폭력들이 대다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들이 무심결에 했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해결 방법에 대한 처벌 수위와 처벌 방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가해자를 배려해주는 것 같으며 분노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공감능력증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교육이 진행되면서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던 학생들이 비난, 비판, 강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표정과 언어를 통해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행동을 보였다. • 학교폭력의 대상자는 가해자,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 방어자도 해당이 되며 방관자와 방어자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태도변화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는 방관자의 태도에 더 큰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는 것에 동감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학생들을 돕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의견이 나왔다.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고려함으로써 친구의 행동과 감정, 장점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등 태도에 변화가 보였다. 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학생들을 돕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폭력예방 지침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태도변화’ 단계에서 피해자는 방관자의 태도에 더 큰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는 것에 동감했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학생들을 돕게 되었으며,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학생들을 돕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폭력예방지킴이가 되겠다고 선

언하였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학생들이 서술한 인식 변화는 <표 7>에 정리하였다. 학생들은 사이버 폭력의 무서움, 익명성 보장의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으며,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미안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표 7> 독서교육 프로그램 참여한 후 학생들의 인식 변화

학생	학생들의 인식 변화
A	나는 익명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된 적도 있고, 피해자도 해보았다. 이제는 익명이라는 생각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u>안 좋은 말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u>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B	나도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이버 안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 활동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무서움, 익명성 보장의 문제점을 느끼게 되었다.
C	학교폭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방관자도 가해자라는 것을 알았다. 방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느꼈다. 새롭게 방어자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유익했던 것 같다. 친구가 따돌림 당할 때 나는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가 될 것이다.
D	이 책을 읽었을 때 왕따, 은따, 사이버폭력 등의 피해가 나오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놀다가 몇 분 만에 서로 욕하고 헐뜯게 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나중엔 힘들어져 자살까지 하게 되는 루트가 많다. <u>이 책을 읽고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미안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u>
E	친구와 서로 뒤에서는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아한 거짓말을 개선하려면 상대방에게 말을 순환하여 직접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F	이런 독후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책만 읽고 끝인데, 이렇게 독후활동을 하게 되면 이 책이 어떤 책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을 질문을 통해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u>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u>
G	친지가 남긴 다섯 번째 쪽지를 읽거나 자살하기 전에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데 같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정곡을 찔러 놀랐다. 우리 또래들만의 비밀이 밝혀진 듯한 느낌이었다.
H	조금은 혼했던 주제였다. 요즘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예민한 부분이기도 했고 그로 인해 포스터나 글쓰기 등을 접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소했다. <u>같은 주제임에도 실질적인 본질을 얘기했던 것 같아서 뜻 깊었다.</u> 많은 이들이 이점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I	<u>주인공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u>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뜻을 알게 된 것 같다. 조금이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 같다.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책을 읽지 않고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여러 권의 책들과 많은 시간동안 하고 싶다. 더 자주했으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것 같다.
J	이 책을 읽으면서 삼봉이가 장미의 친구들에게 해준 말이 외모지상주의를 풀어주는 열쇠라 생각한다. <u>난 사람들을 같은 보지 않더라도 속은 그 누구보다 중요시 해야 한다고 이 책을 읽고 결심하였다.</u>

4.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태도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4.1 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허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자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대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관점 취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공감적 관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적 고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는 상상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연구 설계 및 진행

충청북도에 소재한 S중학교 1~3학년 학생 40명 중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집단은 학교폭력예방 중심의 독서교육을 적용하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이 학교폭력 태도와 인식,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설계는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에 준하였다.

4.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폭력 없는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학생용을 참고하여 장금순(2005)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폭력 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자에 대한 태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하는 태도 등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폭력 태도 검사의 하위영역 및 문항 구성은 <표 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인용 대인관계 반응척도(Inters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김성은(1997)이 우리나라 중학생 수준에 맞게 번안, 수정한 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은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상상하기 등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감 능력 검사의 하위영역 및 문항 구성은 <표 9>와 같다.

〈표 8〉 학교폭력 태도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하위영역	내 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허용적 태도	폭력에 대해 관대하며 허용적인 태도	6	1, 3*, 6, 8, 10, 12	.60
가해 및 피해자태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생각과 개입의 정도	4	5, 11*, 13, 14	.69
학교폭력 대처태도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태도	4	2, 4, 7, 9*	.69

* 표시는 역채점 문항

〈표 9〉 공감 능력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하위영역	내 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관점 취하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심리적 관점에 자발적으로 적응하는 경향	7	3*, 7, 12, 15, 19, 22, 24	.69
공감적 관심	불행한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관심을 경험하는 정도	7	1, 6, 8, 13*, 21, 25, 27	.73
개인적 고통	다른 사람이 심하게 겪는 고통스런 상황이 나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본인도 공포, 불안을 느끼는 경향	7	4*, 10, 11*, 16, 18, 20, 26	.60
상상하기	상상적 상황, 영화, 연구, 책에서 나오는 가 공적인 행위와 감정에 자신을 전이시키는 경향	7	2, 5, 9, 14, 17, 23, 28	.86

* 표시는 역채점 문항

4.4 학교폭력 태도 및 공감능력 분석

4.4.1 동질성 검증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학교폭력 태도와 공감능력에 대한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 간의 t-test를 실시하여 나타난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사전검사에서 학교폭력검사와 공감능력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영역은 없었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4.4.2 학교폭력 태도 사전·사후 차이 검증

독서교육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교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학교폭력 태도와 학교폭력 태도의 하위 요인인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자 태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하는 태도의 모든 영역에서 학교폭력 태도 점수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후 검사 점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태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4.3 공감능력 사전·사후 차이 검증

독서교육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실험집단의 경우 공감능력 종합과 하위 요인인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

〈표 10〉 집단별 학교폭력 태도 동질성 검증

영역	집단(n)	평균(M)	표준편차(SD)	t	p
허용적 태도	실험집단(20)	15.40	4.52	.344	.308
	통제집단(20)	14.95	3.72		
가해 및 피해자 태도	실험집단(20)	9.60	2.68	-.235	.968
	통제집단(20)	9.80	2.70		
대처 태도	실험집단(20)	9.10	2.55	-.058	.571
	통제집단(20)	9.15	2.92		
학교폭력 태도 종합	실험집단(20)	34.10	8.77	0.76	.732
	통제집단(20)	33.90	7.83		

〈표 11〉 집단별 공감 능력 동질성 검증

영역	집단(n)	평균(M)	표준편차(SD)	t	p
관점 취하기	실험집단(20)	26.45	4.38	.518	.582
	통제집단(20)	25.75	4.16		
공감적 관심	실험집단(20)	25.75	3.53	-1.493	.147
	통제집단(20)	27.25	2.76		
개인적 고통	실험집단(20)	20.60	4.54	-1.003	.925
	통제집단(20)	22.00	4.27		
상상하기	실험집단(20)	26.15	4.77	-.803	.762
	통제집단(20)	27.40	5.07		
공감 능력 종합	실험집단(20)	98.95	12.19	-.921	.568
	통제집단(20)	102.40	11.47		

〈표 12〉 독서교육 후 학교폭력 태도 대응표본 t-검증

영역	집단(n)	사전	사후	t	p
		M(SD)	M(SD)		
허용적 태도	실험집단(20)	15.40(4.52)	12.30(4.05)	4.751	.000***
	통제집단(20)	14.95(3.72)	15.15(3.03)	-.721	.479
가해 및 피해자 태도	실험집단(20)	9.60(2.68)	7.65(2.87)	3.642	.002**
	통제집단(20)	9.80(2.70)	10.10(2.80)	-1.143	.267
대처 태도	실험집단(20)	9.10(2.55)	7.45(2.81)	3.885	.001**
	통제집단(20)	9.15(2.92)	9.30(2.22)	-.343	.735
학교폭력 태도 종합	실험집단(20)	34.10(8.77)	27.40(8.75)	5.211	.000**
	통제집단(20)	33.90(7.83)	34.55(7.22)	-.976	.341

p<.01 *p<.001

〈표 13〉 공감 능력 대응표본 t-검증

변수	집단(n)	사전	사후	t	p
		M(SD)	M(SD)		
관점 취하기	실험집단(20)	26.45(4.38)	27.90(3.79)	-2.871	.010*
	통제집단(20)	25.75(4.16)	25.30(3.67)	1.630	.119
공감적 관심	실험집단(20)	25.75(3.53)	27.90(2.82)	-4.558	.000***
	통제집단(20)	27.25(2.76)	26.95(3.10)	1.101	.285
개인적 고통	실험집단(20)	20.60(4.54)	23.90(4.25)	-5.968	.000***
	통제집단(20)	22.00(4.27)	22.25(3.91)	-.526	.605
상상하기	실험집단(20)	26.15(4.77)	27.85(3.88)	-2.497	.022*
	통제집단(20)	27.40(5.07)	27.25(5.42)	.411	.685
공감 능력 종합	실험집단(20)	98.95(12.19)	107.55(10.57)	-7.005	.000***
	통제집단(20)	102.40(11.47)	101.75(11.75)	.834	.414

* $p < .05$ *** $p < .001$

통, 상상하기 모든 영역에서 공감능력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통제집단은 공감 측정 모든 하위요인에 있어서 사후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4.4 가설 검증 및 결과 요약

가설(1)의 검증결과, 폭력예방 독서교육 프

로그램은 학교폭력 태도와 학교폭력 태도의 하위요인인 허용적 태도, 가해 및 피해자태도, 대처 태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2)의 검증결과, 폭력예방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과 공감 능력의 하위요인인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상상하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	내용	채택여부
개념적 가설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1-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허용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대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개념적 가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관점 취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2-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공감적 관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2-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적 고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조작적 가설 2-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 하위영역인 상상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태도와 공감능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재한 S중학교 1-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실험집단에는 폭력예방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예방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태도의 하위요인인 허용적 태도, 가해 및 피해자태도, 대처 태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폭력예방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공감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능력의 하위요인인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상상하기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학교폭력 태도와 공감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에

서는 학교폭력 태도와 공감 능력 모든 하위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집단의 점수는 감소하거나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는 달리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학교폭력 태도와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충청도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지역적인 한계를 가진다. 학교폭력 대상자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연계되어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재량활동 시간이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폭력예방 독서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인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6. 교육부 보도자료 [online]. [cited 2017.2.15].
<<http://schoolsafe.kr/common/download/1000984325/?seq=1071>>.
- 권선영. 2011.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존중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은. 1997. 『학생의 감정공명과 학업성적, 학급 내 사회성, 학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이경, 최명선. 2012. 『공격적인 아이 이해하기』. 파주: 한국학술정보.

- 박민. 2012.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재활심리연구』, 19(3): 387-405.
- 박혜원. 2002. 『공감훈련이 여중생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2007.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법제처. 2017. 학교폭력 개요 [online]. [cited 2017.3.7].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35&ccfNo=1&cciNo=1&cnpClsNo=1>>.
- 『연합뉴스』. 2017. 유네스코 “전 세계 학생 8%, 매일 괴롭힘 당해”. 1월 17일.
- 오계선. 2008.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장금순. 2005. 『민속놀이를 활용한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정실, 차명호. 2012.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상담』. 서울: 학지사.
- 조현주. 2016. 『중학생 집단독서치료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2001. 『독서교육 길라잡이』. 서울: 푸른숲.
- EBS. 2012. 『학교란 무엇인가』. 서울: 중앙북스.
- Shaw, M. 2004. *Comprehensive Approaches to School Safety and Security: An International View*. International Center for Prevention of Crime, Canada [online]. [cited 2017.2.15].
<<http://www.oecd.org/edu/innovation-education/34739136.pdf>>.
- Singer, T. 2006. “The Neural Basis and Ontogeny of Empathy and Mind Reading.”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30(6): 855-86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ekDaSe. 2001. *Guidance of Reading Education*. Seoul: Purunsoop.
- Cho, Hyun-Joo. 2016. *Analysis of Activities of Group Bibliotherapy of Middle School For Students*. M.A.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 Cho, J. and M. Cha. 2012. *Counseling Program to of school violence for Teacher and Parents*. Seoul: Hakjisa.
- EBS. 2012. *What is the School*. Seoul: Chungangbooks.
- Jang, Geum Soon. 2005.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udents'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Development Using Traditional Games*. Ph. D. dis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Sung Eun. 1997. *The Relationship on Empathy, Academic Performance, Social Status within Class, Attitudes toward School of the Student*.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im, Y. and M. Choi. 2012. *Understanding of Aggressive Behaviors of Children*. Paju: KSI.
- Kwon, Seon-Yeong. 2011. *The Effect of a Bibliotherapy Program by Picture Book on the Self-Esteem and Empathy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Ministry of Education. 2016. Ministry of Education News [online]. [cited 2017.2.15].
<<http://schoolsafekr.com/common/download/1000984325/?seq=1071>>.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School Violence Summary [online]. [cited 2017.3.7].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35&ccfNo=1&cciNo=1&cnpClsNo=1>>.
- Oh, Gye Seon. 2008. *The Effect Of Bibliotherapy Program influences on the Aggres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 thesis, Yonsei University.
- Park H., M. Chung, and J. Park. 2007. *Research on Development of Programs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Park, Hyewon. 2002. *A Study of Effects of Empathy Training on the Empathic Ability and the Self-esteem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M.A. thesis, Yonsei University.
- Park, Min. 2012.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9(3): 387-405.
- UNESCO All over the World Student 8%, Everyday Bullying. 2017. *Yonhapnews*, January 17.